

돌아보는 연변룡정팀의 2024 시즌

—김봉길편(상)



김봉길 전임 감독



제3라운드 대 남경도시 경기 한 장면, 이보의 도움으로 로난이 득점에 성공하며 연변팀은 시즌 첫 원정승을 거두었다.

2024년 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은 갑급리그에 진출한 후 진행된 두번째 시즌에서 2차의 감독 교체, 부상 선수가 많고 젊은 선수들의 발휘가 불안정한 등 악재를 이겨내며 7승 10무 13패 31점으로 제12위를 차지하면서 구락부에서 제기한 갑급리그 잔류 임무를 비교적 완만히 완수하였다.

그러나 8승 12무 10패 36점으로 제8위를 차지하였던 2023 시즌에 비하면 거리가 멀다. 풀 득실차를 살펴봐도 올 시즌에는 31:50(-19)이었지만 2023 시즌에는 31:32(-1)로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공격력은 31로 동등하지만 중앙 통제와 문지기기를 비롯한 수비선의 발휘가 기복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시즌에 홈장불패의 기록을 세웠던 김봉길 감독은 연변팀 때 선수들의 기량과 특징 등을 속속들이 꿰뚫어 보는 비교적 우수한 감독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지휘한 12라운드 경기를 6라운드씩 두개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경기 일정에 따라 연변팀은 제1라운드부터 제4라운드까지 원정경기를 치르게 되었는데 상대는 소주둥오, 무석오구, 남경도시, 상해가정 등 팀들로 강팀이라고 할 만한 팀이 없고 모

두가 장강중하류지역에 분포되어있어 이동이 자유롭고 장저후축구팬들이 집중된 곳이라는 등 연변팀에 매우 유리한 면이 있었다.

3월 10일에 진행된 소주둥오와의 경기에서 가장 빛난 순간은 경기 17분경 로장 이보가 상대팀 2명의 수비수 사이로 여유롭게 먼거리 슈트를 날려 시즌 첫 골을 작렬시키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가장 아쉬운 장면은 21분경 아볼레다가 금지구역 안에서 날린 슈트 상대 수비수 연제민의 손에 맞혀나왔지만 주심이 페널티킥 판정을 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보의 골은 제1라운드 최우수 득점으로 선정되었다. 비록 44분경 상대 소주둥오의 장경철 선수에게 한골을 내주고 1대1로 손잡았지만 시즌 첫 원정경기에 슈팅, 유효 슈팅, 공격, 코너킥 등 면에서 우세를 차지하면서 연변팀 실력이 한 수 우위라는 평가를 받았다.

3월 16일 진행된 무석오구와의 경기에서 김봉길 감독은 부상당한 아볼레다 대신에 리룡을 선발 출전시키고 4-4-2 진영을 들고 나왔다. 그런데 경기 10분 만에 무석오구가 곽송의 헤딩골로 한골 앞서고 설상가상으로 47분경 천창걸이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하면서 경기가 파동 국면으로 흘

리갔고 51분경에는 당계운에게 추가 골을 허락하며 결국 0대2 패배를 당했다. 상대의 실력을 과소평가하고 판단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라운드가 결속된 후 연변팀은 1무 1패로 15위에 머물렀다.

3월 23일 진행된 남경도시팀과의 경기에서 김봉길 감독은 왕박호, 리호걸, 허문광, 왕성패를 선발 출전시키면서 변화를 시도하였다. 경기 56분경, 이보가 오른쪽 변선에서 풀문 밀선까지 끌고 들어갔다 문전에 올린 공을 금지구역 안에서 지키고 있던 로난이 그대로 감아차 넣으면서 1대0으로 앞서나갔다. 상대팀 선수들이 조금 정서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미구하여 왕호연선수가 전술 반칙으로 레드카드를 받으며 퇴장하자 경기 주도권은 연변팀으로 돌아왔다. 김봉길 감독은 현지건, 리룡, 리세민, 리달 등을 교체 투입시켜 속도와 체력으로 상대를 괴롭히며 승리를 거두었다. 연변팀의 시즌 첫 원정승이었다.

3월 30일에 진행된 상해가정회룡팀과의 경기에서 김봉길 감독은 남경도시와 똑같은 진영을 출전시켜 전반전을 뛰게 한 후 천창걸, 손군, 리달, 현지건, 왕빈한 등을 교체 출전시키

면서 상대를 압박하였으나 0대0으로 손잡고 전 4라운드 원정경기에서 1승 2무 1패 5점을 거두고 홈장으로 돌아왔다. 원정에서 벌어들인 5점으로 연변팀의 순위는 8위로 올라갔다.

4월 5일, 연길시전민건강중심경기장에는 1만 9,450명의 축구팬들이 구름처럼 몰려왔다. 연변팀의 첫 홈장전 상대는 지난해에 을급리그 1위를 차지하고 갑급리그에 진출한 중경동량룡이었는데 선수층이 고르고 공격력이 강한 데다 승전 욕망이 강했다. 이날 경기 41분경, 연변팀이 얻은 페널티킥을 로난이 주도하여 선제골을 뽑았으나 73분경 꾸준히 추격하던 중경동량룡에 동점골을 허락하면서 아쉬운 무승부를 거두었다. 이날 경기 주역은 주심이었다. 두번이나 레드카드를 꺼내들었다가 옐로카드도 반복하여 축구팬들의 비난을 받았다.

4월 13일에 진행된 두번째 홈장 경기 상대는 석가장공부였다. 지난 시즌의 강팀이었고 당시 2승 2무 1패로 8점을 기록하고 5위를 차지하던 팀이었다. 이날 1만 4,826명이 연길시전민건강중심경기장을 찾아 연변팀을 응원하였다. 전반전을 0대0으로 손잡은 두 팀은 후반전에도 중앙선 쟁탈에 나섰고 58분경 이보가 찢러준 패스를 왕박호가 금지구역까지 끌고 들어가 오른쪽으로 강슛을 날려 상대의 골문을 갈랐다. 이 골로 연변팀은 1대0으로 석가장공부팀을 이겼다. 연변팀의 시즌 첫 홈장승이었다. 6라운드가 끝난 후 연변팀은 2승 3무 1패로 9점을 기록하고 6위에 자리잡았다.

첫 원정승과 첫 홈장승을 일구어낸 연변팀의 전 6라운드는 용병 아볼레다가 부상으로 5경기를 출전하지 못하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연변팀 선수들의 특점에 알맞는 전술 체계를 도입한 비교적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김태국기자



제12회 전국소수민족전통체육경기대회가 22일 삼아에서 개막되었다. 길림성대표단이 입장하고 있다. / 사진 중국민족잡지

길림성대표단

전국소수민족전통체육경기대회서 저력 발휘!

—김광준 길림성대표단 첫 1등상 수확

제12회 전국소수민족전통체육경기대회가 22일에 삼아에서 개막된 가운데 개막후 첫 경기일인 23일에 길림성健儿들은 각자의 참가 종목에서 두각을 보이며 많은 수확을 따냈다. 24일 경기에서도 길림성대표단의 운동선수들은 계속하여 뜨거운 기세로 여러차례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그중 민족씨름, 민족무술, 룡주와 그네 종목에서 1등상 1개, 2등상 7개, 3등상 1개를 수확했다.

특히 민족씨름 종목에서 우리 성 김광준선수가 씨름 52키로그램급 경기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며 1등을 차지하였다. 이는 우리 성 대표단이 제12회 전국소수민족전통체육경기대회에서 획득한 첫 1등상이다.

민족씨름은 유구한 력사와 짙은 민족특색을 갖고 있는 민족전통체육종목이다.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힘과 지혜를 겨룬다. 삼아시제1중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된 민족씨름 종목의 각축전은 매우 치열했는데 그중 씨름 52키로그램급 경기에서 우리 성 대표단은 김광준과 구경걸을 경기에 내보냈다. 두 선수는 침착하게 경기를 펼쳐 기대에 부응하는바 최종 김광준과 구경걸은 각각 이 종목의 1등상과 2등상을 받아안으면서 나란히 시상대에 올랐다.

/ 길림일보

그네 종목도 이날 길림성대표단이 참가한 경기의 중요 종목이었다. 55키로그램이상 2인조 고도 결승에서 연변대학에서 온 우리 성 선수 조역맹과 심비가 우승을 견줄 만한 실력 있는 선수들이었다. 경기에서 고도를 제일 높은 11미터로 신선했고 도전에 성공했다. 그러나 중경팀이 뛰어난 실력을 발휘해 도전 고도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성의 선수가 상대보다 스윙(預擺) 차수가 많아 최종 2등상을 탔다.

오전에 진행된 룡주 경기에서 우리 성의 룡주健儿들은 경기 첫날 시상대에 오른 뒤 계속하여 그 기세를 이어 선후로 녀자조(소룡주) 200미터 직선코스 경기(直道賽), 혼성조(소룡주) 200미터 직선코스 경기, 혼성조(표준룡주) 200미터 직선코스 경기에서 3개의 2등상을 획득했고 남자조(소룡주) 200미터 직선코스 경기 3등상을 거머쥐었다.

이 밖에 이날 먼저 우리 성 대표단을 위해 영예를 따온 건 민족무술 종목이었다. 길림체육학원에서 온 범후현과 류운경은 남자전통권술 1류 8극권 경기와 남자전통권술 2류 8극권 경기를 펼치며 부응하는바 최종 김광준과 구경걸은 각각 이 종목의 1등상과 2등상을 받아안으면서 나란히 시상대에 올랐다.



연변대학에서 온 우리 성 선수 조역맹과 심비가 55키로그램이상 2인조 고도 결승에서 2등상을 획득했다.

[북중미월드컵 아시아지역 종합]

'도전과 기회 공존' 중국팀



11월 19일, 일본과의 경기에서 중국팀의 리량명이 득점에 성공했다.

2026 국제축구련맹(FIFA) 북중미월드컵 아시아지역 18강전이 20일에 제6라운드 경기를 전부 마치며 잠시 휴식기에 들어갔다. 총 18개국이 참가해 6개 팀씩 3개 조로 나뉘어 벌어지는 이번 18강전의 2024년 일정은 마무리됐다. 남은 경기는 2025년 3월 A매치 기간에 재개된다.

11월 19일에 중국남자축구대표팀은 홈에서 1대3으로 일본에 아쉽게 패하며 올해 월드컵 아시아지역 마지막 경기를 마무리했다. 부상과 출전 금지로 무뢰, 페르난도, 리외 등 주력 선수들이 제6라운드 경기를 결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날 대표팀은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며 월드컵 진출에 대한 희망을 쏘아올렸다. 하여



비록 경기는 졌지만 팬들로부터 많은 격려의 목소리를 들었다.

중국과 같은 C조인 인도네시아가 홈에서 2대0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전승하며 18강 경기의 첫 승을 이룩했다. 바레인은 홈에서 오스트랄리아와 2대2 무승부를 거두었다. 6라운드 경기후 일본이 16점으로 조 1위를 차지했고 오스트랄리아가 7점으로 2위에 올랐다.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과 중국은 똑같이 승점 6점을 기록했지만 풀 득실과 득점 차이로 각각 3위부터 6위에 이름을 올렸다.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조별 리그 A조의 이란은 5승 1무 12득점 5실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란은 2위 우즈베키스탄(승점 13)

과 3위 아랍추장국련방(승점 10)의 추격을 받고 있지만 한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본선행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남은 4경기에서 2승 정도를 올리면 자력으로 2위 안에 들 수 있다. 아시아 안팎 우승국인 카타르는 이번 라운드에서 0대5로 아랍추장국련방에 대패하며 소조 4위에 머물렀다.

조별 리그 B조의 선두 한국팀은 당일 원정에서 팔레스티나에 1대1로 비었지만 여전히 B조 1위를 유지했다. 한국, 이라크, 요르단과 오만이 이 소조 상위 4개 팀이다.

이번 아시아지역 18강전에서 각 조 2위 안에 들면 본선행을 확정한다. 3, 4위는 아시아 추가 경기로 향한다. 아시아 추가 경기에서 6개 팀이 승부를 벌여 1위와 2위가 본선에 합류하고 3위는 대륙간 추가 경기에 나선다. 아시아지역 18강전 각 조 5위와 6위, 그리고 아시아 추가 경기 4, 5, 6위는 탈락의 고배를 들게 된다.

아시아지역 18강전 제7라운드 경기는 명년 3월부터 재개된다. 중국팀은 명년 3월 20일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정경기를 펼친다. 월드컵 진출의 꿈을 위해 명년에 치르게 되는 4경기는 매 경기마다 관건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중국팀은 또 2개의 홈장도 있어 상대적인 우세가 있다. 비록 현재 당분간은 소조 '꽃피'의 위치이지만 매 경기를 착실히 펼쳐 나가 보면 주동권은 여전히 중국팀의 손에 쥐여있다.

/ 신화사